

이용섭 광주시장 “직무 잘한다” 68%

한국갤럽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직무수행 평가

17개 광역단체장 중 1위…김영록 전남지사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민선 7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긍정 평가’는 68%로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5%), 3위는 이시종 충북지사(62%) 순이었다.

이 시장의 지난해 상반기 직무 평가는 긍정률이 63%로 김영록 전남지사(65%)에 이어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2위였다.

2018년 7월 민선 7기 광주시장에 취임한 이 시장의 첫해 하반기 직무 긍정률이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16%p가 상승한 것이다.

‘반면 평가 유보’는 2018년 하반기 27%에서, 지난해 상반기 22%, 지난해 하반기 17%로 줄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한 겹침의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광주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시청 안팎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세계수영대회’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을 뚝심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해결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신임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시장과 같은 ‘초선’ 광역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도 2018년 하반기 직무 긍정률 59%에서 지난해 상·하반기는 모두 65%



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무총리가 되면서 사퇴한 이낙연 전암지사도 2017년 상반기 직무 긍정률 63%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국갤럽은 “현재 광주와 전남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 설립살이 등 경제 관련 전망 또한 다른 곳보다 낙관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서은홍 기자



‘전설의 섬’ 목포 삼학도 꽃섬으로 다시 피어난다

사계절 꽃피는 테마정원 조성

목포를 상징하는 ‘전설의 섬’ 삼학도가 가족 친화형 관광거점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6일 “삼학도 테마정원 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낭만항구 목포의 대표적인 섬 삼학도를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꽃 피는 체험형 테마정원으로 꾸며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학도 테마정원의 3대 키워드는 ‘꽃피는 안전한 섬’, ‘어린이 테마파크’, ‘공존의 숲’이다.

삼학도를 낭만과 바다위 꽃으로 데친 섬, 가족 모두가 어울려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숲으로 조성해 해양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월까지 예정된 구상용역

이 마무리되는 데로 시민 의견수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디자인 조경,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생태·경관·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육지가 된 삼학도를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 다시 섬으로 되살렸다”며 “이제는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대신학도 입구 등 삼학도 주변 주요 지점 6개소 ($3500m^2$)에 정원을 조성했다. 올 상반기에는 종삼학도에 무장해 나눔길 1.0km, 중앙공원에 평화의 염원을 담은 생태연못, 수로변 그늘 숲 길 3.2km, 포토존 5개소,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지난해 출생아 수 전국 1위

2018년보다 167명 늘어

영광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결혼·출산 통계 결과 2018년보다 출생아 수가 167명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출생아 수 증가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2위인 경기도 시흥시(141명) 보다 26명이 더 높았다.

영광군은 지난해 1월 조직개편

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전남도 인구종합 평가에서 시군 1위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영광군 인구 회복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추가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소방 119구급서비스 품질 전국 ‘최우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 주관 2019년 전국 18개 시·도 119 구급서비스 품질분야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심정지 환자 18%대 회복율 전국 2번째 ‘특별구급대’ 운영

이번 품질평가는 119구급대의 환자 평가·처치·이송과 같은 병원 전 단계 구급활동 사항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환자

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로 18%대에 이르는 높은 자발순환 회복률과 전국 2번째 ‘특별구급대’ 운영 등 구급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8년 대비 1% 이상 높아진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전국 최초로 17%대 벽을 넘어 소방과 지역 내 병원 간 협업체계(지역화)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됐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의 수준 높은 응급처치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시민에게 더욱 품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교육훈련과 인전취약계층 사고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혁택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수만 있다면 어렵지만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털파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회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